

투데이



16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본부장 등이 국내외 참석자, 유네스코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채택

세계인권도시포럼...아프리카 모기장 보내기 성금 1억 전달 호응

세계적인 인권활동가와 국제인권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6일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최식에는 이희호 여사와 강경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부대표, 카렌 체(Karen Tse) 국제정의연대(IBJ) 대표,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본부장,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500여명의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개최사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도시시간 연대와 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인권증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라며 "광주가 인권도

시로서의 책무를 위해 광주인권현장, 인권지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인권도시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최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경화 부대표는 "광주가 역사적 인권을 실천해 인권도시를 새롭게 이끌어 주고 있다"고 평가한 뒤 "도시차원에서 도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렌 체 국제정의연대 대표는 "광주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포럼 참석자들에게 인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넘어 다른 이들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개최식에서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사망률 1위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보내기 운동인 'Nets Go! 캠페인'에서 모아진 성금 1억원을 배영주 유엔재단한국본부장에게 전달해 포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개최식에 이어 '인권도시 제도화 장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독일 뉘른베르크시와 캐나다 몬트리올시 사례 등이 소개됐고, 광주발 전연구원 김기근 연구원이 광주시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유네스코(UNESCO) 아태 차관관대도시연합 국제회의가 유네스코 아태 사무국 주관으로 세계 인권도시포럼과 함께 개최됐으며, '글로벌(국제+지방) 안전과 평화

위한 창조적 도시'란 주제로 인권과 도시, 사회적 포용, 도시와 지구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오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내외 토론회 23명이 참여해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논의를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와 연계 추진하고, 유엔과 함께 도시차원에서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권 NGO세미나'가 열린다. 한편, 17일 오후 5시 폐회식에서는 학술회의 기간에 진행된 세션별 요약 발표와 함께 인권도시 논문 공모전 수상자 시상과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채택 등이 이뤄진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차지사 "무안·영암, 동북아 관광·물류 중심지로"

군민과의 만남서 강조

박준영 전남지사는 16일 무안과 영암을 방문, "무안과 영암은 공항 활성화와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관광·물류 중심지로 육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무안군청에서 열린 '무안군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는 멀리 봐야 한다"며 "갯벌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면 무안은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무안을 찾게 될 것이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갯벌은 엄청난 자산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갯벌 생태관을 만들고 무안군

현경 일대에 필요하다면 숙박시설 등을 지어 갯벌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국제노선 유치와 경비행기의 지속적인 취항, 관광노선 확대 발굴, 승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악산도시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선 "도의 예산을 가지고 쓸 경우 어디로 소속되느냐의 문제"라며 "전 도민이 낸 세금으로 개발한 이익금을 무안군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지역민 의사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논쟁으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통합 추진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오후에는 영암에서 영암군민과의 대화를 갖고 "영암은 대북국가산단과 세계 4~5번째 규모의 조선소가 있고 도가 추진하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F1대회 등 복합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북 줄어든 거대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전남은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며 "F1대회 성공 개최,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 될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높은 친환경농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영암군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증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흥 소록도서 오늘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한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행사가 17일 김항식(사진)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흥 소록도에서 열린다. 한빛복지협회와 국립소록도병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사랑과 희망으로 하나 되는 한센가족'을 주제로 개최된다. 기념식과 체육대회, 전시회, 공연, 한센인 이해 교육, 한센가족 복지 상담 등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또 한센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있다. /오광택기자 kroh@kwangju.co.kr

이날 소록도를 방문하는 김항식 국무총리는 한센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한센인들을 위로하고 한센인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또 소록도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광택기자 kroh@kwangju.co.kr

외국인 환자 유치 지난해 12만2천명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12만2297명으로 전년 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에 전체의 81%가 몰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자료를 내고 이 중 외래환자가 9만5810명(78.3%), 건강검진 환자 1만4542명(11.9%), 입원환자 1만1945명(9.8%)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국인 실환자 대비 외국인 환자 비중은 0.27%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42%, 여성 58%였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여성환자 비율이 각각 78%, 71%로 월등 높았다. 국가별로는 미국(27.0%), 일본(22.1%), 중국(18.9%), 러시아(9.5%), 몽골(3.2%) 등의 순이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내과(15.3%), 피부·성형외과(12.7%)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외국인 환자 39%가 상급종합병원을, 21.1%는 종합병원, 25.1%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63.7%)이 가장 많았고 경기(14%), 대구·부산(10%)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된 외국인 진료에 따른 총 진료수입은 180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5.3%나 증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수장에 생물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환경부 수돗물 관리 강화. 광주시 수돗물 오염사태의 과문이 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정규모 이상 취수장에 생물감시장치와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 재해대비 급수시설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공급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수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1만m 이상일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상수도 시설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은 지진이나 대규모 정전 등 재해 때를 대비해 지하 저수조, 급수탑, 응급수도전 등을 둔 재해대비 급수시설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가뭄 등 비상시에는 농어촌용수도 원수(응용·공용용수로 농어촌용수로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전남 독거노인 10명 중 8명 '할머니'

남편 사별후 노후준비 필요 60세이상 전체 32% '나홀로'

전남지역 독거노인 중 80%는 할머니로 조사됐다. 또 여성이 남편 사망 이후 혼자 살아야 할 9년 동안 불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6349명이며, 이중 31.9%인 11만3683명은 혼자 살고 있다. 또 독거노인 중 79.9%인 9만840명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마을에 할머니들만 많으니,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생활비

를 줄이고 신변 안전 등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들 노인들을 위해 관내 8460곳의 경로당에 해마다 쌀(7~8 가마)과 난방비(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1억2000만원을 들여 나주, 함평, 영광 등지의 경로당의 개·보수에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집'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생명에는 이날 '은퇴저널'에 발표한 '인생 100세 시대...아내에

게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 독거노인이 80% 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여성이 남편 사망 이후 혼자 살아가야 할 9년 동안 은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1세, 77.2세로 7살 정도 차이 나고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약 2년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사별 후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은 약 9년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속 늘어나

는데도 여성들의 노후준비는 취약하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 사별 후 서울에서 혼자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96만원이고 적정 수준은 141만원이다. 하지만 남편이 가입한 연금 혜택을 누리는 여성은 39.5%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족연금의 수준은 30~40만원 정도에 그쳐 최소 생활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남성이 아닌 여성 중심으로 노후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오광택기자 kroh@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 모집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라점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 27기)
공개강좌와라점
5월 25일(금) 오후 2시
위치: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외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본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본원/대구본원/부산본원/울산본원/경주본원/제주본원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장애나 만성장 때문에도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거리에서 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장애나 만성장 때문에도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증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노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3호